

유관기관 상생협력 강화

양충모 남원시장, 경찰서·소방서·교육지원청 등 방문해 소통 행보 나서

남원시에 따르면 양충모 남원시장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하며 민선 9기 시장의 핵심 가치인 '현장 중심 행정'과 '협력 행정'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지역 주요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안전과 교육, 산림 복지, 생태관광 등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양 시장은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남원교육지원청, 서부지방산림청,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를 차례로 방문해 취임 인사를 전하고 기관 장들과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남원경찰서와 남원소방서에서는 최근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민 안전망 강화와 재난 대응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남원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인제 양성 교육환경 개선 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민선9기 주요 현안인 '국립 지리산 숲채원' 유치와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 남원시는 운봉읍 화수리 일원에 산림교



양충모 남원시장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하며 민선 9기 시장의 핵심 가치인 '현장 중심 행정'과 '협력 행정'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소통 행보에 나섰다.

육·휴양·치유·레포츠·숙박 기능이 융합된 산림복지 거점을 조성해 지리산권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산림복지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에서는 구룡계곡 탐방로 개선과 뱀사골 탐방로 조성 등 지리산권 생태관광 탐방로 개선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 급경사와 낙석 위험이 있는 구룡계곡 탐방로를 정비하고, 반선마을과 내림마을을 잇는 뱀사골 보행 전용 탐방로를 조성해 탐방객 안전 확보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양충모 시장은 "민선 9기 시장의 최

우선 과제는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남원을 만드는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 지리산 숲채원 유치와 지리산권 생태관광 탐방로 개선사업은 남원의 산림·생태 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남원이 지리산권 산림복지와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행복살림단 모니터링 실시

남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상황 점검·개선 방안 마련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공무원 45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부와 위원 및 시민 등 30여명이 참여한 '행복살림단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수립된 제5기 지역 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사업별 성과 목표 달성 여부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효성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단순한 사업 추진실적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 현장 실무자,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민·관 협력형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변화하는 사회보장 환경과 시민의 복지수요를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복살림단은 △소 보편(돌봄체계) △마을 나눔(마을공동체) △일 채용(고용환경) △배움 더함(교육문화)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총 57개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목표 달성 수준, 재정 집행상황, 민관협력 추진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자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과



함께하는 일과 삶이 조화로운 도시 남원' 구현을 목표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안부살림 서비스 △거동 불편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스마트 경로당 구축 △지역경제회복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무로 간병 온(ON) 종일 서비스 지원 △남원 인제학당 설립 △스마트경로당 구축 등 11개 사업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현장 의견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2026년 하반기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2028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에도 활용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복지정책을 담고 있는 지역복지의 총괄계획인 만큼 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지속적인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며, "행복살림단 모니터링은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정책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민·관 협력의 장으로, 현장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전북자치도 지방세 우수시군 '대상'

남원시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우수시군 종합평가'에서 3개 평가그룹 가운데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올해 상반기(4월 1일~5월 31일) 지방세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자의 부당산 92건과 차량 등 702건을 압류했으며, 이 중 부당산 14건과 차량 10건은 공매를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출국금지 8명, 명단공개 15명, 가택수색 11명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재를 병행했으며, 가택수색을 통해 5명으로부터 7,100만 원을 현장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혁신 세정행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시설 자동안내문자시스템'은 번호판 영치 즉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132대 영치, 1억 1,8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더불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소액 체납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가구에는 긴급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강한 징수와 따뜻한 보호'를 실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7~10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임실군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지방재정 확충 및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7월 1일부터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2명의 관리단원을 채용하여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공무원과 3인 1조 총 6명으로 운영중이다.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에 대한 전화 상담 및 납부 독려, 현장 방문을 통한 체납자 실태조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 발굴을 통한 복지부서 연계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여름철 영농종합상황실' 가동

임실군, 농업재해 선제 대응 총력

임실군이 기후변화로 해마다 심화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군은 여름철 기상재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여름철 영농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재해 예방부터 현장 대응, 피해 복구까지 아우르는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6~8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고, 지역별 강수량 편차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평균기온 역시 평년(23.7℃)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농업 분야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실군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과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식량작물반(10명), 과수원예작물반(13명), 동향초사반(12명) 등 3개반 36명의 전담 대응반을 편성해 재해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은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농



경지 배수로와 논두렁, 물꼬를 사전에 정비하고 시설하우수와 축사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폭염에 대비해서는 농작물의 고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물 흘려대기와 미세살수시설 가동을 적극 지도하는 한편, 축산농가에는 송풍팬과 환기시설 가동, 축사 온도 저감관리 등을 집중 안내해 가축 폐사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순창군이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업 경영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 대행비의 일부를 지원해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순창군은 총사업비 1억 5천만원이 투입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예정이며, 군은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양충모 남원시장, 10일까지 첫 업무보고 진행

남원시는 양충모 시장이 '시민과 함께하는 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7월부터 10일까지 각 부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 9기 공약사업 등 핵심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 특히 모노레일 사태 해결, 청량도 회복, 기업 유치, 지리산 의뢰기반 치유 정주 클러스터 조성, IB 교육벨트 구축, 농업에 산 확대 등 주요 현안과 민선 9기 핵심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내에서 벗어나 팀장급 공무원까지 함께 참여한 종합토론 형식으로 진행,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부서 간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양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공급자 중심의 행정 관행을 탈피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일할 것을 주문, 특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발높이에 맞춰 부지런히 현장'을 뛰는 맞춤형 소통 행정을 민선 9기 시장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명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윤권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킁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